

🏠 홈 > 뉴스 > 뉴스 > 정치/행정

## 옛 송학사 건물, 문화예술 창작·교육공간으로

내년 4월 조성공사 완료 계획

[315호] 2009년 11월 06일 (금) 19:57:17

이승희 기자 ✉ yellbee@bpnews.kr

십정동 백운공원 안에 있는 옛 송학사(=군 기무부대) 건물이 문화예술 창작·교육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십정동 186-408번지에 있는 옛 송학사 건물을 예술창작과 문화교육, 연습실 등으로 조성해 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옆에 건립 중인 부평아트센터의 부속시설로 포함해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부평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옛 송학사 건물을 존치시켜 활용하는 계획(안)을 인천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 10월 28일 원안으로 승인 받았다. 11월 설계용역에 착수, 내년 2월에 조성 공사를 시작해 4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14억원으로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옛 송학사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1900㎡이다. 이 건물은 송학사가 산곡1동으로 이전하기까지 군 기무부대의 통합막사로 사용됐다.

© 부평신문(<http://www.bp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